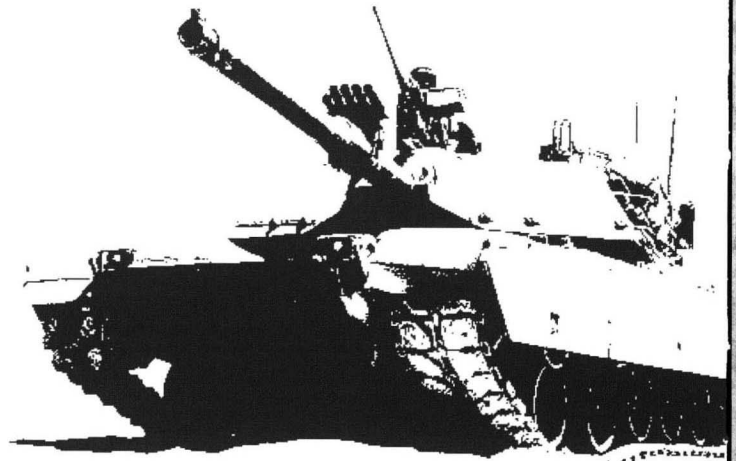


이라크 전쟁의 실상이 날이 갈수록 그 추악하고 잔혹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을 표방했던 이 전쟁의 이면에서 자행된 미군의 조직적인 포로학대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인들은 또다시 전쟁의 야만성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파병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진정 과거 베트남 파병을 거울삼아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쟁이란 그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까마득한 원시시대로부터 현대문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참혹한 전쟁들을 생각하면 과연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성詩聖 두보(杜甫:712~770)는 일찍이 전쟁의 참혹함과 야만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절규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옛 새
귀 귀
시 시
들 들
통 통
곡 곡
하 하
네 고



기태완

車轆轤，馬蕭蕭	수레는 덜컹덜컹 말은 히힝히힝
行人弓箭各在腰。	병사들은 활과 화살을 각각 허리에 찼네
耶媼妻子走相送，	부모와 처자들이 달려가며 전송하느라
塵埃不見咸陽橋。	먼지 자욱하여 함양교를 볼 수 없네
牽衣頓足攔道哭，	옷자락 당기고 발 구르며 길을 막고 통곡하니
哭聲直上千雲霄。	곡성소리 곧장 하늘까지 퍼져가네
道傍過者問行人，	길 가던 사람이 병사에게 물으니
行人但云點行頻。	병사는 다만 접행이 빈번하다고만 말하네
或從十五北防河，	어떤 이는 열다섯에 북쪽에서 하서를 지켰는데
便至四十西營田。	곧 사십이 되어 서쪽에서 둔전을 경영하고 있다네
去時里正與裴頭，	떠날 때 이정이 머리를 묶어 주었는데

歸來頭白還戍邊.	백발로 돌아와 다시 변경을 수비하네
邊庭流血成海水,	변경엔 유혈이 바닷물을 이루었는데
武皇開邊意未已.	무황은 국경 개척의 뜻을 그만 두지 않네
君不聞?	그대는 듣지 않았는가?
漢家山東二百州,	한나라 산둥이백 주의
千村萬落生荊杞.	천만 촌락이 가시나무로 뒤덮였음을
縱有健婦把鋤犁,	설령 건강한 부녀자가 있어 농사를 지었다라도
禾生隴畝無東西.	논에 지린 벼는 동서 없이 어지럽기만 한데
況復秦兵耐苦戰,	다시 진땅의 병사들은 고전하며
被驅不異犬與鷄.	내몰림을 당하는 것이 개와 닭과 다르지 않네
長者雖有問,	장자가 비록 물어 보지만
役夫敢伸恨?	역부가 감히 원한을 말할 수 있겠는가?
且如今年冬,	게다가 금년 겨울엔
未休關西卒.	관서의 동원이 그치지 않았는데
縣官急索租,	현관은 다급하게 조세를 거두니
租稅從何出?	조세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信知生男惡,	참으로 알겠다! 아들 낳는 것은 나쁘고
反是生女好.	도리어 딸 낳는 것이 좋은 것임을
生女猶得嫁比鄰,	딸을 낳으면 이웃에다 시집보낼 수 있지만
生男埋沒隨白草.	아들을 낳으면 백초 속에 매몰시킨다네
君不見青海頭,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청해 가에는
古來白骨無人收.	옛날부터 백골들을 거둘 사람 없어서
新鬼煩冤舊鬼哭,	새 귀신들 원망하고 옛 귀신들 통곡하니
天陰雨濕聲啾啾!	날 흐리고 비 축축하면 아우성소리 울러나네

당나라 현종玄宗 천보天寶 10년(751) 4월, 검남절도사 선우중통鮮于仲通은 병사 8만 명을 거느리고 남쪽 운남雲南 지역의 운조국雲調國을 정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패하여 6만 명의 병사를 전사시키고 본인은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양국충은 선우중통의 패전 사실을 감추고, 도리어 선우중통이 남쪽 정벌의 공이 있다고 표창한 후, 다시 하남과 허북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군사력을 보충하여 재차 정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운남 지역은 역질이 많아서 열 중 여덟이 흠이 싸우기도 전에 돌림병으로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모병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충은 각 도에 어사를 파견하여 장정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군대에 편입시켜 종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터로 장정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와 처자들의 통곡소리가 온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위 두보의 〈병거행兵車行〉은 바로 이러한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원한을 고발한 것입니다.

장안長安 북쪽에 있는 함양교는 지금 자욱한 먼지에 싸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출병하는 수만 명 장정들의 행렬과 그들을 전송하는 부모처자들이 뒤엉킨 채 거리는 온통 북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빼격대는 수레바퀴 소리, 울부짖는 말울음, 활과 화살로 무장한 채 죽음의 전장으로 떠나는 자식과 남편과 아버지의 옷자락을 제각기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길을 가로막고 통곡하는 늙은 부모들과 처자식들의 절규는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의 처참한 장면 그대로입니다.

길가의 나그네가 병사에게 물어 봅니다. 물론 나그네는 시인 자신이지요. 병사는 다만 출병이 빈번하다고만 말합니다. 어떤 병사는 15살 소년병으로 출병하여 토번(吐蕃: 티베트)이 침공하는 하서(河西)를 방어하다가, 40살이 되도록 전장에서 노역을 하며 복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떠날 때 이장이 소년병의 머리를 상투 틀어 주었는데, 백발이 되어 돌아와서는 다시 변경을 수비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변경은 잦은 전쟁으로 병사들의 유혈이 바다를 이루었는데, 황제의 정벌 욕심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동 지역 200주째 천만 촌락은 가시나무로 뒤덮여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징병되어 농사지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아낙들이 농사를 지어 보지만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진평의 병사들이 고전한다며 남은 장정들마저 개와 닭처럼 몰아대어 전쟁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관들은 다급하게 조세를 징수하니, 도대체 어디에서 조세가 나온단 말입니까?

참으로 알겠습니다. 아들 낳는 것은 나쁘고 딸을 낳는 것이 좋은 것임을. 딸을 낳으면 이웃마을에 시집보낼 수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전쟁터의 백초 속에 묻을 일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토번과 빈번하게 싸웠던 청해 가에 옛날부터 전사자들의 백골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 새 귀신들은 원망하고 옛 귀신들은 통곡하니, 날 흐리고 비 기운 축축하면 슬픈 울음소리 울려나는 것을.

시선詩仙 이백李白과 함께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 두보는 평생 뜻을 펴 보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불우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 시성詩聖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교적 도덕의식을 지니고 항상 백성들의 질곡을 대변하며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는 것을 시인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또한 전쟁을 혐오하고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세가의 집에서는 술과 고기가 썩어나는데, 길에는 얼어죽은 해골이 널려 있네?” “출병하는 병사에게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길에다 버리는 것보다 못하네?” “어디에서 장사를 구하여 은하수를 끌어와서, 칼과 갑옷을 씻고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보의 시편들을 역대의 평론가들은 시로 쓴 역사라고 하여 시사詩史라고 평하였습니다.

신록의 계절에 암울한 전쟁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으로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라크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익 운운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국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두보의 〈병거행〉을 다시 읽으며 부디 소중한 젊은 목숨들이 또 다시 야만적 전쟁에 휩쓸려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한문**

이 글을 쓴 기태완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
《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